



페이스북 2인자 ‘셰릴 샌드버그’가 던진 여성 논쟁

2013.07.26 | 최정은 새사연 연구원 | jechoi@saesayon.org

페이스북의 최고운영책임자인 셰릴 샌드버그의 책이 이제 갓 한국어판으로 번역돼 나왔다. 지금 그녀의 책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나, 한국 사회 내에서 어떠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 이미 1년 전에 샌드버그의 주장에 대해 한차례 격렬한 논쟁이 일었다.

최근 페이스북의 최고운영책임자 셰릴 샌드버그(Sheryl Sandberg)가 그녀의 책 「린인(lean in: 기회에 달려들어라, 와이즈베리, 2013)」을 들고 한국을 찾아왔다. 이제까지 그녀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실리콘밸리의 성공아이콘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책은 샌드버그 개인의 성공신화를 담은 회고록이나 자기계발서류는 아니다. 「린인」에는 샌드버그 자신이 고위층에 올랐으나 여전히 일하는 여성으로서,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겪은 애환, 좌충우돌기, 극복 방법들을 솔직한 화법으로 털어놔 주목을 받고 있다.

그녀의 책 내용은 생소하지 않다. 이미 셰릴 샌드버그의 유명한 TED 강연 “왜 여성 리더는 소수인가(Why we have too few women leaders?)”를 통해 책의 요지는 충분히 전해졌다. 왜 여성 리더가 소수인지에 대해 샌드버그는 자신을 포함한 여성 개인의 소극적인 태도, 결혼과 육아에 대해 지나치게 앞서 걱정하는 자세 등으로 인해 리더가 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여성들이 성공할 기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녀의 책은 이제 갓 한국어판으로 번역돼 나왔다.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나, 한국 사회 내에서 어떠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 이미 1년 전에 샌드버그의 주장에 대해 한차례 격렬한 논쟁이 일었다.

시작은 이렇다. 아틀란틱 커버스토리에 앤마리 슬로터(Arne-Marie Slaughter)가 “왜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여성은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가?(Why Women Still Can't Have It All, Atlantic 2012.7) 라는 글에서 샌드버그가 포춘지에 기고한 글 “떠나기 전에 떠나지 마라(Don't Leave Before You Leave, Fortune 2009.10)” 를 언급하며 페미니즘 논쟁이 촉발되었다. 앤마리 슬로터는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의 수석 고문을 역임한 바 있으며, 프린스턴대 공공·국제관계대학원 교수로, 성공한 한 명의 여성이다.

그러나 슬로터와 샌드버그의 어법은 다소 달랐다. 슬로터는 그녀의 글 제목과 같이 여성이 일과 가정 모두를 가질 있을까에 대해 회의적인 얘기를 쏟아내었다. 슬로터는 힐러리 클린턴을 보좌하며 여성 최초로 국무부의 정책기획국 국장으로 지낸 생활담을 생생히 전하면서, 십대인 두 아들을 돌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고백했다. 이 글에서 슬로터는 샌드버그의 기고 글을 언급했다. 샌드버그가 여성 리더가 소수인 것에 대해 지나치게 여성 개인의 자세를 문제 삼아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지적했다. 이후 각 언론에서는 슬로터와 샌드버그의 대결구도로 만들면서 여성 논쟁이 불붙었다.

슬로터의 관점은 이렇다.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기업과 사회 구조의 문제로, 여성들이 유연한 시간과 친가족적 근무환경이 주어진다면 리더가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보는 시각이다. 샌드버그의 주장처럼 여성의 적극성만으로 극복되지 않는 근본적인 사회와 가정환경에 처한 여성이 많으며, 미혼모이거나, 아빠가 가사분담을 나눌 수 없는 등을 지적했다. 슬로터의 의견에 동조하는 많은 글들이 줄을 이었다. 샌드버그는 인종이나 미국 외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까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샌드버그가 가족과의 식사를 위해 5시 반에 퇴근하라는 말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했다. 자신의 시간과 경력을 만들 수 있는 샌드버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과연 얼마나 많은 여성이 실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린 인」에서 샌드버그가 밝혔듯 스스로도 그 논쟁을 모르고 있지 않다. 현재 여성 리더의 한계도 인지하며, 여성 리더가 소수인 상황에서 인구 절반의 여성을 대변하기 어려운 현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샌드버그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실 성공한 여성 중 한 명인 샌드버그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해 절절히 고민하고,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고, 여성의 적극성을 자극하며, 남성의 역할을 강조한 점은 매우 높이 살 만하다.

샌드버그와 슬로터의 논쟁 역시 긍정적으로 보인다. 성공신화의 두 주인공의 목표는 다르지 않다. 보다 많은 여성들을 위해 평등한 기회와 환경을 만들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발전적 과정에서 생겨나는 의견 차이로 보인다. 앞으로 샌드버그의 새 책이 가부장적 인식이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줄 지 기대되기도 한다. 아래에 샌드버그와 슬로터의 논쟁이 한창인 때 나온 글을 옮겨본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슬로터 대 샌드버그: 여성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나?
(Slaughter vs. Sandberg: Can women have it all?)

2012년 6월 25일

패트리시아 셀러스(Patricia Sellers, 포춘 수석 편집자)
씨엔엔머니 포춘(CNNMoney Fortune)

여성과 일에 관한 논쟁은 시작일 뿐이다. 여성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경우이거나?

처음으로 지난주 런던에서 열린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포춘 회의에서 쉐리 블레어가 일하는 여성과 모성에 대해 말했다.

그 다음 차례로 아틀란틱 잡지 커버 스토리에 앤마리 슬로터(Ane-Marie Slaughter)의 “왜 여성은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가?(Why Women Still Can't Have It All)”가 이어졌다.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의 수석 고문으로 지낸 바 있는 앤마리 슬로터는 유능한 상사에 도전하면서, 동시에 그녀처럼 일하는 엄마로서의 어려움도 토론했다.

지금 이 논쟁이 인터넷에서 한창이다. 젠더 격차에 대해 누구를 비난할 것인가? 슬로터는 기업가나 정책가를 그 대상으로 하면서, 의도하지 않게도 글에 언급된 셰릴 샌드버그와 대결구도에 놓였다.

샌드버그는 페이스북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서, 지난 2년간 일과 삶의 균형 문제에서 여성이 책임 있게 나서도록 독려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떠나지 마라(Don't Leave Before You Leave)”라는 글을 2009년에 포춘지에 실었다. 샌드버그는 여성들의 용기 있게 일의 기회로 뛰어들기를 요구했다. 그녀는 대학이나 회의에서 이 메시지를 전해왔다.

샌드버그의 연설 중 하나가 유튜브에 올라 25만7천 뷰에 이를 정도로 관심을 보였으나, 슬로터는 페이스북의 경영자가 여성들에게 경력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라”고 요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슬로터는 “격려하는 용어를 썼으나, 샌드버그의 권고는 비난 이상의 것이었다.”고 썼다.

실제 삶과 경력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두 엘리트이자 슈퍼스타 여성간의 논쟁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



을 뉴욕타임즈는 “이는 대결인가?(Is this a "face-off,")” 로 물었다. 이후 슬로터는 “이는 일상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의 논쟁” 이라고 언급했다. 슬로터는 “샌드버그의 논점은 여성들의 뒤쳐진 야망 대 남성의 야망은 우리 사회나 정치 구조에서 훨씬 훨씬 더 작은 문제” 라고 말했다. 그녀는 “샌드버그의 메시지는 전체 여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샌드버그처럼 보통의 여성들은 초인이거나 부유하지도 않다” 고 덧붙였다.

맞다. 이는 싸움이다. 샌드버그는 이 이야기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거나 기사가 나간 후 슬로터와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두 영향력 있는 여성들은 결코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슬로터는 야망격차 이론의 증거가 드러난 만큼 샌드버그의 관점을 재고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최근 맥킨지 조사에서 코카콜라, 포드사, 포춘의 부모를 포함한 60개 회사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성의 18%가 CEO 자리를 열망하지만, 남성의 36%가 정상을 탐내고 있다. 맥킨지 조사는 남성들은 곧바로 돌격하지만, 잠재력이 큰 여성들은 중간 경력직에 정착하는 것을 밝혔다.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내 여성 리더가 18명뿐이고, 포춘 500대 경영 위원회 구성원의 14%가 여성이라는 사실에 누구도 놀라워하지 않는다.

만일 회사가 야망 있는 여성들을 위해 유연한 근무와 가족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이 수는 극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슬로터는 믿는다. 슬로터의 기고 글은 아틀란틱 웹사이트의 최고 트래픽 기록을 깨고, 프린스턴대 사서함으로 수 백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슬로터는 33살의 여성 변호사가 원하는 것 두 가지를 언급했다. 두 번째 자녀와 법률고문직이다. 그 여성이 일주일에 하루는 집에서 일하기를 요청했을 때, 상사는 거부했고 외부 후보를 채용했다. 슬로터는 “이는 정말 터무니없다” 고 털어놓았다.

슬로터는 주목받는 여성들이 승진하기 위해, 그리고 그곳에 머물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부정하는 유사한 이야기들을 들어왔다고 한다. 많은 회사에서 유리천장의 장벽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샌드버그는 공식석상에서 제도적 장벽은 인정했으나, 그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슬로터는 꼬집었다.

슬로터와 샌드버그는 만나야만 한다. 나는 두 여성과 수년째 알고 지낸다. 슬로터는 “성공한 두 여성은 같은 것을 원한다. 우리는 단지 문제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했다. 적어도 두 리더가 협업한다면 여성들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2012/07/why-women-still-cant-have-it-all/309020/>

<http://postcards.blogs.fortune.cnn.com/2009/10/05/facebook-coo-sheryl-sandberg-unedited/>

<http://postcards.blogs.fortune.cnn.com/2012/06/25/slaughter-sandberg-women/>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2013년 새사연의 '세계의 시선' 목록

2013년 7월 26일 현재

아젠다	발간 일	제목	작성자
세계의 시선	1/11	세계 경제 침체에 가려져 놓쳐서는 안 될 문제들	이수연
세계의 시선	1/28	금융위기와 가계부채, 그리고 신용 협동조합	김병권
세계의 시선	1/25	경제위기와 보건의료정책, 그리고 건강	이은경
세계의 시선	1/27	루비니 교수가 말하는 2013년 경제의 5대 위험	김병권
세계의 시선	2/1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공정한 성장을 위한 길	김수현
세계의 시선	2/12	소득 불평등에 대한 미국 보수의 반격?	여경훈
세계의 시선	2/14	세계적 불황에 누가 가장 취약한가?	최정은
세계의 시선	2/19	주민들의 건물 공동소유로 높은 임대료 극복하기	이수연
세계의 시선	3/9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가 평가하는 차베스	김병권
세계의 시선	3/12	단기 자본 수익에서 벗어나는 것이 창조경제	이수연
세계의 시선	3/21	싱가포르가 저출산에 대처하는 방법	최정은
세계의 시선	3/26	EU,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나서	김수현
세계의 시선	3/29	뱅크런과 구제금융 ABC	여경훈
세계의 시선	4/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백년만의 영국 연금개혁	이은경
세계의 시선	4/9	영국 아빠들이 '출산휴가' 를 거부하는 이유	최정은
세계의 시선	4/16	아베가 쏘아 올린 세 가지 화살	여경훈
세계의 시선	4/23	고용 회복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정책 필요	김수현
세계의 시선	4/30	자신의 국민과 싸운 '철의 여인' 대처	김병권
세계의 시선	5/7	재정 긴축을 놓고 충돌하는 세계	이수연
세계의 시선	5/14	'복지 여왕' 의 신화에서 벗어나라	이은경
세계의 시선	5/21	일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경험의 시사점	최정은
세계의 시선	5/24	규제가 없다면 선한 자본도 없다. 애플도, 구글도.	김병권
세계의 시선	5/28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말	여경훈
세계의 시선	6/4	OECD, 한국에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권고	김수현
세계의 시선	6/10	동아시아 산업정책 경험과 아프리카의 발전	김병권
세계의 시선	6/19	퀘벡 상티에 2006년 선언, "사회적 경제는 옳았다!"	이수연
세계의 시선	6/25	맨큐의 1%를 위한 변론	여경훈
세계의 시선	7/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조세회피	김병권
세계의 시선	7/11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불평등	여경훈
세계의 시선	7/12	고래의 죽음이 살린 바다 밑 생태계	김병권
세계의 시선	7/18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성과	김수현
세계의 시선	7/24	디트로이트 파산, 빈곤의 섬이 된 도시	김병권
세계의 시선	7/26	페이스북 2인자 '세릴 샌드버그' 가 던진 여성 논쟁	최정은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